사 설

때 아닌 완전개방론

국산한약재 수급조절품목에 대한 완전개방론이 제기돼 우리를 당황케 하고 있다. 지난달 5일 열린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복지부를 비롯 일부 위원들이 수급조절품목 중 지황 백출 등 10종에 대한 전면개방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는 생약협회를 비롯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농협 등의 반발에 부닥쳐 결국 현 수급조절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며칠후 수급조절위원회로 부터 발송돼 온 공문은 참으로 황당한 것이었다. 내용인 즉 제16차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전면개방여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최종결정키로 했으니 각 위원들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수급조절품목이란 국내생산농가보호차원에서 수입은 제한하되 수급상 부족하다 싶으면 수급조절위 논의를 거쳐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들여 올 수 있는 제도이고, 이 제도는 국내 생산농민들의 막대한 피해와 원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지속돼 왔다.

더구나 2백50여 가지의 약재가 모두 자유롭게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29종에 불과한 수급조절품목 조차를 완전개방 하겠다는 것은 국내 약용작물 생산기반이나 농민의 재배현실을 고려할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생산량이 미흡해 국내 수급량이 5~10%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급조절품목으로 묶여 있으면 최소한 종자종근의 멸실만은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종자 종근을 보호하지 못해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진다면 만약 수입산의 가격이 급상승하더라도 그때 가서는 대책이 없는 것이다.

국내생약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수급조절품목 전면개방 운운하는 것은 재배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고 결국은 생약농사 포기를 부채질하는 형국이 되고 말것이다.

국산약재 품질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적절한 가격이 되면 구매하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재미교포 한의사나 미국인 한의사들 사이에서도 국산한약재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이제 조금씩 국산약재의 국제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려야 우리 한약재가 국제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볼 때 완전개방의 조건이 성숙된 시점이라 하더라도 국내생약농업의 현실상 지금 당장의 개방논의는 무리다.

고가 한약재 국가서 전매

보건복지부 검토중

보건복지부는 녹용 웅담 사향 등 주요 한약재를 국가가 전매하거나 국가기관이 일정한 검사절차를 거쳐 한약재의 품질을 인증토록 하는 등의 한약재 유통구조개선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가 전매관리제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 한약재 유통과정에 섭생하는 폭리를 근절하기 위해 한약재에 대해서도 국가전매관리제도를 도입, 담배인삼공사와 같은 한약재유통공사(가칭)를 만들어 가격관리 수출입 등을 전담케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등 국가기관이 한약재의 품질을 검사해 양질의 제품만 인증해주고 한약재 수출입 등에 관여하는 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등 기존 유통관련기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안에 두가지 방안중 한가지를 채택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관련업계는 『지금의 공기업도 점차 민영화되고 있는 추세에 한약재 국가전매관리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녹용 세계거래량 80%한국서 소비

세계 녹용 거래량의 80%를 한국이 소비하며 국내 한약재 수입액 중 녹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녹용 수입액은 4천2백75만 달러로 전체 한약재 수입액 1억2천4백36만 9천달러의 34%를 차지했다.

이같은 수입액은 5천3백50만달러로 추정되는 전세계 녹용 무역량의 80%에 이르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별 녹용수입액은 뉴질랜드가 1천7백85만6천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중국 1천1백8만달러, 러시아 9백96만9천달러, 캐나다 1백59만3천달러, 북한 1백37만6천달러, 미국 87만달러 순이다.

보건복지부 집계

한약재 무역적자 "심각"

한약재의 무역역조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최근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년동안 한약재의 수출액은 8배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무려 1백22배나 늘어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약재 수출액은 지난 71년 3백만 달러에서 95년 1천1백34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이미 지난 92년의 2천3백24만달러를 고비로 94년 1천1백66만 달러로 계속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수입액은 지난 71년 1백49만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25년이 지난 95년에는 1억8천1백72만달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0년 수입(1천9백15만달러)이 수출(1천2백61만달러)을 앞지르기 시작한 15년 만에 다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16배나 많은 한약재 수입국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한약재 부문에서의 무역적자는 1억7천여만달러가 발생했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국내 소비자들의 보약 선호심리와 무역개방확대, 중국 등 값싼 외국약재의 유입증가 등이 맞물려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슈퍼씨비닐 - 종자 절감에 감탄하고 인력절감에 놀란다

무우, 알타리, 당근, 참깨, 황기등에 더욱 좋습니다.

■ 슈퍼씨비닐, 이런점이 좋습니다.

1. 파종, 복토, 비닐멀칭작업을 한번에 할수가 있어서 시간과 인력이 대폭 절감됩니다.
2. 우수한 씨앗만을 엄선하여 필요간격에 따라 정확히 점파할 수 있으므로 발아율이 뛰어날 뿐더러 귀중한 씨앗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비닐 멀칭으로 인해 발아와 성장이 빠르므로 단기 수확이 가능하며 품질도 뛰어납니다.
4. 제초인력이 대폭 절감되고 제초작업이 용이합니다.
5. 파종간격이 일정하여 기계화가 용이합니다.

슈퍼씨비닐 적용작물 종자 소요량 (250평기준)

작 목	슈퍼씨비닐 종자소요량	작 목	슈퍼씨비닐 종자소요량
황 기	5 홉	더 덕	10 홉
황 금	4 홉	우 슬	15 홉
도라지	15 홉	현 삼	3 홉

기타 당귀, 백지, 방풍, 강활, 하수오등 모든 미세약초종자는 슈퍼씨비닐 가공이 가능하며 그 소요량이 대폭 절감됩니다. 자세한 재배방법은 문의바랍니다.

■ 기존씨비닐의 단점을 완전 보완해 발아율이 뛰어납니다.

기존 씨비닐

지표면 씨앗부위가 고르지않으면 발아가 고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필요이상의 씨앗을 붙이게되 씨앗 소비는 물론 속음 작업도 더딤

개량 된 슈퍼씨비닐

씨앗 부착부분을 정밀가공하여 작은 요철에서도 땅에 밀착되므로 발아율이 대폭향상되어 종자소비량이 극소화됨

씨닐農産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72-4 풍전빌딩302호 TEL: 449-8280~1

'96년 슈퍼씨비닐을 선택해주신 농협 작목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